

尹 탄핵 심판 선고일 확정... 시민 반응

“주권자 국민 명령 따르라... 역사적 변곡점 되길”

동구 금남로 일원서 시민사회 희망·염원 메시지
만장일치 인용 촉구...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도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할 가운데 광주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 아긋난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이 바로잡히기를 기원했다.
또 헌법재판관의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으로, 분열과 혼돈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되길 소망했다.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탄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격양된 표정을 지으며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재(24) 씨는 “3월로 전망됐던 탄핵 심판이 늦어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며 “다음 주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소리에 절망스러웠는데, 오늘 갑자기 선고일이 확정돼 놀랐다”고 말했다.

1일 정오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 점심시간을 맞은 시민과 대학생들로 북적였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현재 선고에 관한 소식을 나누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카페 창가에 앉은 이들은 TV 뉴스를 바라보며 “이제 끝을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긴장된 표정으로 귀 기울이는 이들은

이어서 “어느 정도 감증이 해소될 것 같다”면서 “현재는 국민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남로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미경씨(50·여)는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기일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속앓이를 했다”면서 “12·3 계엄 이후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장사도 안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나라까지 혼란스러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했다.
이날 180여명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3 계엄 후 120일, 국회로부

터 탄핵 소추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면서 “4월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며 내란 진압을 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즉각 탄핵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즉각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경찰청,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연가 중지·가용인원 총동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전남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엔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한다.
앞서 담당지역 내 주요 경제시설 등에 파악을 마친 광주경찰청은 헌법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집단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서울로 파견되는 기동대(4개 중대·350명)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주요 경제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투입한다.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국회의원 사무실 △5·18광장 △검찰청·법원 △대학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광주비상행동이 현재 선고 당일 5·18민주광장에서 생중계를 송출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결과를 지켜본 뒤 파면이 이뤄질 경우 같은 날 오후 7시에 승리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

원 사무실 일원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지휘관 판단에 따라 경력을 추가 배치한다.
대학기도 주요 경제 대상이다. 학기가 개강한 데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다.
범원과 검찰청 등을 비롯한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도 예방해야 한다.
이에 광주경찰은 임시편성부대를 동원한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으로 구성된 임시편성부대는 5개 경찰서(1급서)에 1개 중대(60~70명)가 투입된다.
경찰특공대(30여명)는 비상대기하다 필요시 현장에 즉시 투입한다.
전남경찰청도 철저한 대응과 질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로 상경하는 기동대(4개 중대·350명)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주요 시설에 대한 경제·보안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는 물론 3선 이상인 국회의원 사무실(신정훈·박지원 등), 법원 등에 경력을 배치한다.
임시편성부대 준비도 마쳤다. 2급서인 목포서, 여수서, 순천서에는 60명이 투입되며, 3급서인 광양서, 나주서, 고흥서, 해남서, 무안서, 등에는 20명을 배치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월어머니 노래’ 공연 업체 선정 놓고 잡음

차순위 업체 전문성 부족 지적... 밀어주기 의혹도
일각 “오월 공연 독점화 안돼... 자정 능력 있어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추진하고 있는 ‘오월어머니 노래’ 공연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우선 계약 협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차순위 업체의 전문성 부족, 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공법단체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이날 사업 우선 계약 협상 업체가 ‘제안서 협상 결과 불성립’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ACC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A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공연을 추진한 후순위 A업체에 대한 공연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A업체가 행사대행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것은 1년여에 불과해 공연 기획부터 공연 추진 및 홍보 등에 있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2년 설립해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등록됐고, 지난해 1월 ACC의 입찰 공고 당시에도 행사대행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를 급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6개 업체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의 공연을 기획, 추진해 왔던 업체들이었던 만큼 A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해졌다.
공연장 섭외에도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보도 지인에게 한정적으로 이뤄져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 공연은 820여석 중 170여석, 6월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공연은 620여석 중 300여석만 자리를 찼다.
특히 일반 시민에게 오월 정신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공연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권의 주요 인사의 참석에만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를 찾아가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등 월권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차순위 업체를 5·18부상자회 임원이 운영 중이고, ‘오월행사’는 오월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 공법단체 회원들은 이번 업체 선정을 두고 지난해 10월 서구의회를 향한 방문해 ‘사업을 내나라’, ‘포기하지 않으면 서구의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발언했고, 집회 신고도 5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공연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월어머니 노래’ 공연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공연 기획에 참여했던 김용만씨는 “고인이 된 김동찬 총감독이 기획 단계부터 오월어머니들을 찾아가 설득하던 모습에 작금의 상황이 답답하지 않다”며 “노래를 통해 어머니들의 슬픔을 위로, 치유하기 위한 의미가 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금을 내는 오월어머니들 위주로 단체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것은 오월어머니의 정신이 아니다. 전국화, 세계화를 외치는 5·18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SOCIETY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6:18 달맞이꽃 18:54
예보 18:54 달맞이꽃 2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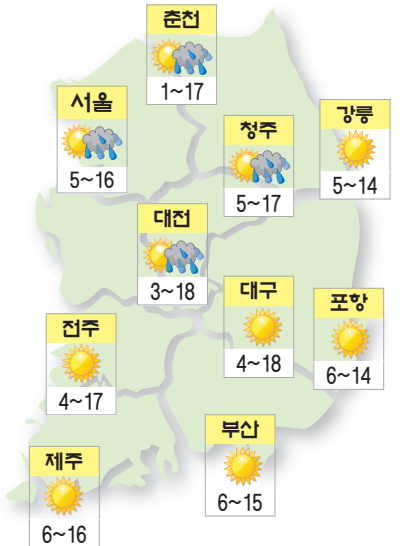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Mokpo, Yeosu, Suncheon, Gyeongsang, Jeonnam, and Jeju.

Table with sunset and sunrise times for Mokpo and Yeosu.

완도 한 간이창고서 불

마녀집 ○·완도군 한간 간이창고에서 불이 나 17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1일 완도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9분 완도군 고금면 한주택 간이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소방당국은 장비 10대, 소방대원 2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8분 만인 오전 11시7분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는 등 소방 추산 1776만원의 재산 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완도소방 관계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과부하, 합선 등에 의해 발생하며 노후 배선 교체, 콘센트 청소 등이 필수다”고 당부.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Advertisement for TONYMOLY Green Tea Water Cream. Features a jar of cream and text: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농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